



다솜 사랑

Volume 4, Number 4

2008년 6월 7일

다솜 사랑
Vol. 4, No. 4 (제18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역은이: 교사 임강주

학교장 인사말씀

지난 5월 10일에는 프리몬트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주최 학생 한글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솜에서는 소풍으로 참가하여 맑고 밝은 자연 속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참석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주최 학생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난 15년간 계속 되어온 행사로서 두 대회에 참가자만 750명, 부모님과 교사 기타 관계자들까지 합하면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행사입니다. 한인 동포 2세대만을 위한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고 학생들도 은연 중에 경쟁심이 많이 발동하여 긴장감이 감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회의 목적은 친선에 있으므로 즐겁고 공정하며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주최 측에서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행사를 마치고 대회에 임했던 학생들의 모습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학생들은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돌아보고 내면의 세계를 아름다운 우리말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해마다 행사를 치르면서 심사위원님,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로부터 매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백일장에 나와 글을 쓰라고 하면 힘들어 하면서도 매년 계속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상도 타고 학년이 올라가,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발전과 성공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즐겁고 기쁠 때가 없습니다. 한국학교가 우리 2세들의 발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다솜의 학생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특히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상을 많이 탔습니다. 이는 우리 다솜이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습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학생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학년을 마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솜에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란 가을학기에 비해 봄학기에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변화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9월까지 한국학교를 떠나 있을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된 휴가를 보내고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름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즐거운 여름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다솜 달력

- 6월 14일 북가주 교사 집중연수
- 7월 17-19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 9월 6일 2008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교단 일기

원은경 선생님 (백제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다솜 한국학교 교사라는 사명을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난다. 나에게 참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내가 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일깨워 주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픈 당찬(?)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에서의 노하우와 노련미는 더해졌지만 순수했던 처음의 열정은 식어가고, 익숙한 일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삶’의 실린 “무의미가 이루는 의미”라는 제목의 Q.T. 묵상 수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전해 주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의미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살펴보면, 무의미한 것들이 모여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밥을 먹이고 안아주며 어르다 보면 어느새 멋진 성인으로 자랍니다. 주제를 잡기 위해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악기들이 연주할 부분들을 음표로 표시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아름다운 교향곡이 태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무의미하게 보이는 작은 일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완성품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에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널려 있지만, 하나님께는 삶의 요소들이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연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료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게 어느덧 일상의 일이 된 한국학교 교사로서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을 연합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돼 있을 우리 학생들을 기대하게 됐고, 이런 의미있는 일에 동역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지금은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어를 힘들어하는 우리 2세대들이지만, 또 조금씩 반복하여 익혀가는 한국어 공부를 지루해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영어와 한국어를 다 잘하는 자들로, 확장된 섬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멋진 차세대 리더들로 자라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이 뭉클해진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 한 방울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 물방울에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본다.

점심 봉사 감사

4월: 조은성, 현성 학생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5월: 김원섭, 김정연 학생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6월: 박미소, 홍희현 학생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다솜 친구들의 백일장 글짓기 수상작품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버지 (은상)

이름: 홍소연

한국에서 오셔서 영어를 잘 못하시지만 최선을 다 하시는 제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많이 놀았는데 요새는 얘기할 때마다 싸웁니다. 당뇨병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시는 내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는 늦게 퇴근하시고, 출장도 많이 가셔서 저랑 얘기도 많이 안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어 합니다. 제 동생한테는 썰렁한 농담으로 웃기게 하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십니다. 싸우고 나서 사과하려고 저에게 음식을 사 주시지만, 일주일 후에 또 싸웁니다.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누나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랑 성격도 더 알고 싶지만, 시간도 없으시고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숙제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시고, 저를 매일 생각해주는 단 하나뿐인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힘든 표정을 지으면 제 마음이 아파집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무거나 해드리고 싶는데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다가오면, 저는 많이 불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알고 함께 살아왔는데 저의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어머니랑 친구들이 더 친합니다. 제 친구들 아버지랑 비교하면 아버지는 조용하시고 쑥스러워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말도 많이 안 하시지만 행동으로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학교 성적표에서 좋은 점수를 안 가졌으면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시려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으시고 저를 학원에 보내십니다. 제가 일을 성실하게 안하면 짜증내시고 저를 야단치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많이 이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상관 안 해서 우리 관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안되지만 저의 아버지는 제 인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아무거나 할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 (장려상)

이름: 김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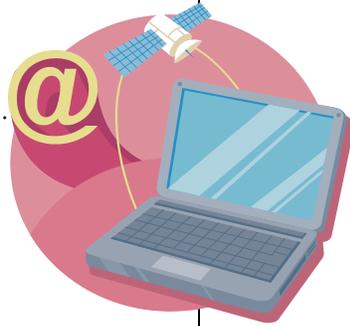
나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해요. 제 생각에는 아빠는 참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아빠의 성격이 너무 밝고 좋고, 그리고 언제나 저를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제 아빠는 어린 시절 때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태어나시고 나서 아빠는 다른 사람 가족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아빠는 자신의 진짜 부모님들을 모르고 자라셨어요. 어릴때 어느 날 다리를 다치셔서 그 한쪽 다리가 살짝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언제나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세요. 아빠는 어린 시절에 힘든 일들이 있었어도 지금은 너무나 밝고 맑은 미소도 많이 지으시고 성격도 언제나 좋으시고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잘 이해를 해주세요. 제 아빠는 성격도 좋으시면서도 저하고 제 오빠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학교에서 만약에 잘못해도 아빠는 그래도 최선을 다 했으니까 괜찮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빠는 제가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 있으면 꼭 그렇게 될거다, 잘 할수 있다고 말을 언제나 해주세요. 아빠는 저하고 제 오빠를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주세요. 언제든지 아빠는 제 오빠와 저를 아빠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아빠의 좋은 점들을 다 도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아빠의 성격과 격려심이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빠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동안 사시도록 꾸준히 매일 방기도를 해요.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빠의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장려상)

이름: 이수지

나에겐 컴퓨터 한 대가 있다. 하지만 평범한 컴퓨터가 아니다. 때로는 가슴 벅차게 신기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지금쯤이야 이 컴퓨터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 받아들였지만 처음 받았을 때의 혼란을 잊을 수 없다. 몇 년 전 전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짜증을 내며 가게에 들렀다. 하지만 들어가자 주인 할머니가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그리고선 뒷창고로 뛰어가더니 힘들게 컴퓨터 한 대를 들고 오시며 나한테 사라고 강하게 추천하기 시작했다. “싫어요. 완전 고물이잖아요!” 나는 벌써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옆에서 말도 안되게 낡은 컴퓨터를

사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도 어르신께서는 버릇없이 행동할 수는 없어서 곧바로 내 자신을 조절하고 핑계를 댔다. “죄송하지만 제가 돈을 깜빡했네요.” 하지만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할머니는 내 팔목을 잡으시더니 그 컴퓨터의 주인은 아무래도 나인 것 같으면서 무료로 가져가라고 부탁했다. 황당했지만 공짜라는 말에 홀려 결국 난 킁킁대며 그 컴퓨터를 받아 갔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켜 봤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무슨 이상한 노래가 들리며 화면에 지구의 지도 하나가 떴다. 속으로는 “역시, 불량품이잖아.” 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마침 한국의 지도가 뜨길래 클릭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방은 통체로 초스피드로 뱅뱅 돌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겁이 나서 눈을 감고 다시 뜨니 내가 있는 곳은 더 이상 내 방이 아니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은 땀이 온 몸을 적시기 시작했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그곳은 누군가의 방이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아까 내 컴퓨터가 있었다. 나는 주위를 파악하기 위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문을 활짝 여니 드디어 깨달았다. 여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누구의 장난일거야. 꿈일거야.” 면서 현실을 의심했지만 눈 앞에 있는 나의 컴퓨터는 내 앞에 뚜렷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한 심 분 동안 멍하니 벽지를 쳐다본 후 난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서 지도를 클릭했다. 그리고 내 집을 열심히 찾아 다시 클릭하니 또 그 무섭게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나고 ... 나는 또 다시 눈을 꾸욱 감았다. 순식간에 또 다시 내 방이라는 것이 이번엔 좀 더 쉽게 믿어졌다. 나는 일본도 지체없이 다시 컴퓨터의 코드를 빼고 상자에 허겁지겁 넣고 그 할머니의 가게로 질주했다. 하지만 아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별 이상없이 운영되던 가게의 문에는 큰 글씨로 “폐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안은 깜깜했다. 그 때 난 이미 강심장이 되어 황당을 느끼긴 커녕 문을 내 온몸이 쑥스러울 때까지 쳤다. 그리고 세 시간 뒤 난 나의 폐를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할머니를 원망하며 다시 발길을 돌렸다. 컴퓨터와 함께... 지금은 그때 당시의 좌절과 원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별난 컴퓨터에 적응도 조금씩 됐고 그 컴퓨터 때문에 남들은 꿈과 소설에서나 그럴 수 있는 모험도 경험했다. 이 컴퓨터는 한국뿐만 아닌 지구 전체 어디든가의 체험을 가능하게 허락한다. 처음에는 고물로 취급당했던 이 컴퓨터, 이제는 나의 분신이다.

컴퓨터 (장려상)

이름: 이 수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컴퓨터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저를 볼 수가 있죠. 한 10년 전은 제 무명시절이었지만 요새는 제가 인기가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장돈건 뺑치는 톱스

타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파요. 제가 아픈 것은 다 바이러스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제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제 몸을 침입하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전 빨리 병원에 가야해요. 컴퓨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절 고쳐주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 바이러스를 없애고 복사한 데이터를 다시 저에게 주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도 있죠. 바이러스 예방 소프트웨어를 깔면 쉽게 예방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절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제 주인이 절 잘 안 챙겨줘 바이러스가 침입했어요. 사람들에게 고백할게 있습니다. 저는 착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요즘 계속 해킹을 해요.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제 주인이 계속 그런 일을 하네요.

제가 태어났을 때 착한 컴퓨터로 산다는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컴퓨터인가봐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도 이제 제 주인을 떠나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나쁜 컴퓨터로 못 살겠어요. 전 이제 좋은 일만 하고 싶어요. 사람들도 이제 컴퓨터들의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착하게 살고 싶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나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항상 저희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컴퓨터 핑계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장려상)

이름: 이형진

내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저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난 아무 이상이 없는 남자 아이이고 이 세상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내 스토리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태어나고 아기였을 때 내 가족이 날 원하지 않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잘해주는 척을 냈는데 저는 속 마음을 알았습니다. 공부도 안 가르치고 TV만 계속 봐도 혼내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난 그 나이 때 꿈이 있었습니니다. 훌륭하게 커서 내 부모에게 보여줄 결심을 정했어요. 책을 매일같이 저녁마다 부모 몰래 읽고 테입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고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니다. 학교를 보냈지만 학교에 돈 한푼도 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일등하려고 제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덟 살 되었을 때 내 어머니가 날 쓰레기라고 처음으로 불렀어요. 어머니가 “쓰레기야, 설거지해” 라고 소리쳤어요.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웃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공부하고 숙제하느라고 열 한시에 잤어요. 매일매일 시키는게 많아졌어요. 어떨 때는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점점 내가 쓰레기라고 내 자신을 잊게 되었어요. 어느날 내가 반에서 꼴찌를 했어요.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 집을 들렀어요. 내 아버지는 “우리 아이니까 상관마!”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문을 꽂 달았어요. 그 다음날 내가 처음으로 물건을 훔쳤어요. 조그만 시계를 책상 위에 어떤 애가 놔두고 간 것이었어요. 중학교까지 이렇게 계속 되었어요. 그때는 하도 “쓰레기”라는 말을 들어서 눈물이 다 마르고 내 심장은 굳어 있었어요. 8학년 마지막 날이었어요. ‘C’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었지요. 그날 내 담임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날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내 인생에 상관말라고 소리를 몇 번 질렀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부모 아들의 사랑이 원지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펄펄 나오면서 내 인생을 다 말해줬어요. 선생님은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고 내 심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9학년이 되었습니다. 뭘 훔치고 싶을 때마다 “난 쓰레기가 아니야. 훔치면 세상의 쓰레기가 된다”라고 계속 나한테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서서히 내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학년이 되었을 때 ‘A’를 다 받았어요. 내 부모는 나를 무서워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부모를 버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마다 붙이고...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곧장 뛰어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모든 책은 가방에 있고 무거웠지만 참고 세상에 난 쓰레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드디어 1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지원서를 내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도 편지가 안왔습니다. 네 달이 지날 때 드디어 편지가 온 거예요. 손을 떨면서 열었습니다. 버클리, 스탠포드, MIT, 다 된 거예요!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대학 수업료를 어떻게 낼 것인가요. 그 봄에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글 백일장 대회도 나가고 로봇 대회도 나가고, 나갈 것은 다 나갔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2만 달러 밖에 못 벌었어요. 이전 한 방법 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 처음에 갔을 때 “쓰레기야, 뭘 원해?”라고 소름끼치게 물음이 나왔습니다. 내 상황을 잘 설명해도 돈을 못 받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를 했어요. 내가 잘 되면 부모를 잘 모시고 사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자 바로 내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 아기야”라고 처음 불렀어요. 이것이 내 스토리입니다. 저는 MIT에서 의사공부를 한 후 부모랑 잘 살고 있습니다. 관계는 더 좋을 수가 없고 너무 행복합니다. 난 쓰레기가 아닙니다.



한글 속담을 공부해요

누워서 침 뱉기

(Cut off your nose to spite your face)

정사론 (대한민국반)

학교에서 작품발표회가 있었어요. 애들이 어느 그림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참 못 그렸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무조건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린 그림인 것을 알았어요. 누워서 침뱉기를 했어요.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Ill news flies)

김대경 (대한민국반)

내가 친구한테 옆집 아저씨가 다쳤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날에 다른 친구가 나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 있다

(Even the greatest makes mistakes)

강지나 (대한민국반)

우리 반에 제일 똑똑한 아이가 다른 애들도 다 맞힌 시험 문제를 틀렸습니다. 애들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A barking dog never bites)

강인모 (대한민국반)

제일 떠들던 아이가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조용한 학생이 떠들던 아이보다 점수를 더 잘 받았습니다. 잘난 척하는 아이가 수학 제일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더니.

김하영(대한민국반)

어떤 아이가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내일 내가 먹을 것 많이 가지고 올게. 나만 믿어!” 하지만 그 다음날에는 그 아이가 먹을 것을 조금 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

굽어 부스럼

(Let sleeping dogs lie)

이형진(대한민국반)

학교에 널 시를 썼는데 더 잘 쓰려고 문장을 조금 더 넣는데, 주제에 벗어났다고 ‘B’를 받았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

김민하 (발해반)

나는 엄마에게 도움이 로봇을 주고 싶어요. 도움이 로봇이 엄마의 일을 도와줘요. 청소도 해주고 파리도 잡고 아주 멋있겠어요. 우리 아빠는 Doritos를 많이 먹어요. 어제 밤에 Doritos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해주는 포스터를 사줄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로봇이 아빠와 같이 회사에 가고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도움이 로봇은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시는 선물이 되겠어요.

이수현 (발해반)

나는 엄마하고 아빠에게 상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엄마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 나는 엄마에게는 테니스 라켓하고 예쁜 꽃나무를 상으로 줄 거예요. 아빠에게는 골프채와 골프공을 줄 거예요. 아빠는 회사에서 돈을 매일 벌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도 사주고 애완 동물도 사줘요. 엄마하고 아빠는 매일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라고. 엄마는 나윤이, 주영이, 서영이, 석준이, 지은이 언니하고 나를 돌봐줘요. 나는 엄마하고 아빠에게 진짜 큰 상을 주고 싶어요.

이지우 (발해반)

나는 우리 엄마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아름다운 엄마예요. 내가 울 때 안아주고 “그만 울어.”라고 말해요. 다칠 때 반창고를 붙여주고 뽀뽀를 해줘요. 내가 아플 때 약을 먹여줘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요. 제 생일에 맛있는 불고기를 볶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플 때 죽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나는 상으로 빨간색 장미를 주고 싶어요. 왜냐구요? 제 엄마는 장미를 좋아하니까요. 엄마가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임재순 (발해반)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주고 싶은 이유는 잘키우고 음식을 주셔서 상을 주고 싶습니다. 상을 줄 것은 어머니는 귀걸이를 주고 아버지는 바이올린 책을 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귀걸이를 좋아할 이유는 이쁘게 만들어서 좋아할 것입니다. 아빠는 바이올린을 좋아해서 좋아할 이유입니다. 상을 줄 이유는 나는 어

머니와 아버지를 많이 좋아해서 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줄 것은 도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요새 힘들어서 도와 줄 것입니다. 이게 다 상을 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원윤지 (발해반)

나는 어머니께 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힘든 숙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잘 돌봐주세요. 아버지도 잘 돌봐주시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세계 여행을 상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꿈이 가족이 함께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머니께 상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어머니가 감사하지 않으세요?

조민기 (발해반)

내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김상현입니다. 김상현은 한국에 있는 친구입니다. 메이플스토리 가이드책을 상으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여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 주었으니까요. 상을 주고 싶은 이유는 메이플 딱지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현이가 딱지를 주어서 엄청나게 좋았어요. 테일즈 러너 잘하는 법도 알려주고 인라인 스케이트 잘 타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두발 자전거 타는 걸 많이 도와 주었어요.

최유진 (발해반)

나는 엄마에게 상을 줄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잘 키워 주시니까요. 좋은 음식도 만들어요. 요리책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 맛있는데 더 맛있어지게요. 좋은 옷도 사 줄 거예요. 옷을 좋아하니까요. 좋은 게임도 주고 싶어요. 게임은 재미있으니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5월 생일 학생 : 김유나, 박지연, 유정윤, 윤하나, 임종현, 장시온, 정사론, 최학준

6월 생일 학생 : 노현우, 원혁, 유혜리, 이관희, 장시내

다솜 선생님께서로부터의 편지

다솜의 꽃님들에게

박주희 선생님 (무용반)

저는 지난 2004년, 다솜 한국학교가 시작할 때부터 한국무용 특활선생님으로 함께 해온 박주희입니다. 약 5년 동안 우리 다솜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참으로 소중한 추억입니다. 대부분 이곳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러분들에게 한국 무용은 처음엔 낯설고 배우기가 어렵기도 했겠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이기에 가르치는 저보다 더 열심히 춤을 추며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탈춤, 소고춤, 부채춤, 화관무, ... 등 처음 들어보고 처음 보는 한국의 춤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 Immanuel Kant.

저는 무용반 학생들 여러분을 “다솜의 꽃님들”이라 부릅니다. 어느 곳에 피어 있는 어떤 꽃보다 이쁘고 향기로운, 우리 다솜에 피어 있는 꽃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갈 때 한번 짚은 기억하게 될 한국 무용들. 그것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2008년 6월 7일

한국 무용 선생님께서로부터



고조선반 학생들의 솜씨 자랑

황현경 선생님 (고조선반)

다솜한국학교의 귀염둥이들이 모인 고조선반입니다. 이전에 병아리반이었을 때는 반 이름이 귀여운 느낌이었는데, 고조선반이라 하니 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저뿐일까요?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 아이들과 지낸 일 년이 참

즐거웠습니다. 아마도 다솜의 반 중에서 가장 돌망똥망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 덕분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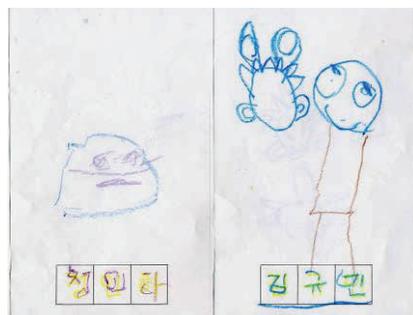


원준

Thia진주



유정화



정인하

김규민



최지현

Thia공주



다솜 친구들의 특별한 활동 시간



소고반



종이접기반



컴퓨터반





미술반



해를 그리는 아이

김정일

아이는 어느새 도화지를 빠져 나와
자꾸자꾸 겨울 하늘을 뚫어본다.

도화지에 떠오른
붉은 해는
불꽃을 뿜기면서 빠알갈게 타고른다.
활활 타고른다.

따스하고 환한 빛은
물결이 되어
동그랗게 번져
도화지를 온통 핏빛으로 가득 채운다.

아, 창박엔 겨울이 가득 넘쳐 흐르는데
아이는 도화지에 되돌아 와 앉아
털목도리보다 따스 해를 안고
불을 쥘다.

그리고 아이는 밤마다
해바라기 씨 봉투 속에
다시 와 숨는다.

해바라기 씨를 까먹은 아이가
도화지에 해를 낳고는
도화지 속에 살며시 잠이 들었다.



한국무용반



학사 보고

Volume 4, Number 4

다 소 학 사 보 고		
등록 학생 수	2007년 가을 학기 108명 2008년 봄 학기 72명	
1년 개근 학생 수	7명	
학기 개근 학생 수	13명	
우등상 및 기타 수상 학생 수	10명	
졸업 학생 수	2명	
각 반 수상자 명단		
고조선반	1년 개근	유정화
	학기 개근	원준, 정인하
신라반	학기 개근	이아영, 박상준, 윤혁, 이재원, 장준원
고구려반	학기 개근	김유나, 윤하나
	우등상	윤하나
백제반	1년 개근	김민희, 김상준
	학기 개근	서사무엘, 원수빈
	우등상	김민희
발해반	1년 개근	원윤지, 이수현
	학기 개근	김민하
	우등상	김민하, 조민기
고려반	1년 개근	박지연, 원혁
	학기 개근	홍희연
	우등상	박지연, 홍희연
조선반	발전상	김아름, 김규범
대한민국반	성실상	이형진, 김대경
졸업생		서준호, 김병석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



공지 사항

2008년도 가을학기 등록 안내: 재학생의 등록 마감은 6월까지로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회 북가주 구연 동화 대회 수상자

- 장려상: 최연정
- 입상: 이수현

제15회 학생 한글 백일장 대회 중등부 수상자

- 은상: 홍소연
- 장려상: 이수지, 이수정, 이형진, 김하영

제8회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수상자 명단

- 장려상: 박지연, 원윤지
- 입상: 이수현

제8회 그림그리기 대회 중등부 수상자 명단

- 입상: 이하나.